

The Last Will & Testament of Jacob I 욥의 간증과 마지막 유언 (창세기 49:1-12)

Guilt & Curse; Grace & Redemption

Jacob's dying words to his oldest four sons can be summed up by four terms...Guilt, curse, grace, redemption. For the older three brothers though we're meant to long for redemption....we're just left with the curses from their guilt at least on first appearance.

In this, Jacob's last will & testament...we long for relief from guilt & curse....Here's the question for us..... 'if there is no end but curse for our guilt, "what hope of redemption is there for me a sinner no less than these guilty men?" Well....when we look more closely at this passage & in the context of the whole of Scripture....There is sure hope — not in these men nor any of us to redeem ourselves....but in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He is the seed of the woman to crush the head of the evil one from the first reading.

v1, Jacob called his sons, 'Gather yourselves together, that I may tell you what shall happen to you in days to come.' His last testament is also a prophesy... truth in its harsh but also by grace blessed reality!

The Older Brothers' Guilt & Curse (2-7)

V2, "Assemble and listen, O sons of Jacob, listen to Israel your father. "Reuben you are my firstborn, my might and the first fruits of my strength, preeminent in dignity and preeminent in power."

Jacob begins with acknowledging Reuben as his firstborn with the privileges of power & dignity. But that merely makes what follows all the more sorrowful.... v4, 'Unstable as water, you shall not have preeminence, because you went up to your father's bed; then you defiled it — he went up to my couch!' We've mentioned Reuben's sin in this regard when it has come up previously.... It was just after Jacob had lost Rachel back in Genesis 35:22. He pitched his tent with his family in the region around Bethlehem. Rather than Reuben caring for his father...he committed adultery with his father's concubine; Rachel's grieving servant Bilhah.

죄와 저주: 은혜와 구원

야곱이 죽어가면서 그의 네 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이 단어들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죄, 저주, 은혜, 구원. 야곱의 첫 세 아들은 그들이 비록 구속을 간절히 원했을지라도, 그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이 가운데 우리를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과연 구원의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오늘 구절과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분명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이 소망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유다의 족속을 통해 이 분명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앞의 구절에서 읽었듯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자손입니다.

1 절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라고 말씀할 때, 야곱의 마지막 말은 또한 예언인 것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가혹하면서도 축복받은 은혜의 현실에 대해서도 또한 말합니다.

큰형들의 죄와 저주 (2~7 절)

2~3 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야곱은 그의 말을 시작하기를, 장남으로서 권위와 위엄을 누리는 르우벤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남의 타이틀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의 지난날의 행보를 보게 됩니다... 4 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으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창세기 35:22 절에서 야곱이 자신의 아내인 라헬을 잃게 되었을 때, 그는 베들레헴 주면 지역에 가족과 함께 장막을 쳤고, 그 가운데 르우벤을 슬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돌보기보다는, 자신 아버지의 첩이자, 라헬의 하녀였던 빌라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The word is abrupt when at the end of that verse, it simply says, 'And Israel heard about it.' We remember a motivation behind Reuben's intent to rescue Joseph from his brothers hands may well have been in part to try & ease his guilt before Israel. We remember also his desperation in making the rash offer to his father in Gen. 42:37 that he'd kill his own sons should he not bring Benjamin back from Egypt. Guilt leaves its heavy burden.....it's no wonder that the world tries to suppress that fact...because we all fear the consequences of guilt.

Here we see it in Reuben's demotion... 'you shall not have preeminence'. We also see the distance between Jacob & Reuben— instead of saying, 'you went up to my couch' said, 'he went up to my couch!' — with that is the unresolved curse — these last words of a father to a son....how tragic....how awful....how hopeless. In the history of the tribes going into the PL, Reuben's tribe settled on the east of the Jordan....but gradually weakened & disappeared

We're meant to feel the heaviness & the hopelessness of Reuben's curse.....that continues to sons two & three....v5, "Simeon and Levi are brothers; weapons of violence are their swords. Let not my soul come down into their council; O my glory, be not joined to their company. For in their anger they killed men, and in their wilfulness they hamstrung oxen."

The incident to which Jacob primarily refers is in Genesis 34 where after Jacob & Esau had reconciled, Jacob & his family journeyed to central Canaan to the city of Shechem & there he purchased some land from the ruler of the region known as 'Hamor'. At that time Hamor's son, Shechem sexually assaulted Jacob's daughter, Dinah... In vengeance, Simeon & Levi went against the city, killing Hamor & Shechem as well as rescuing Dinah. But they didn't stop there — murdering all the males, kidnapping their wives & children & plundering their possessions. Here, the added detail from Jacob in parallel with slaughtering men in anger is hamstrung oxen in the wilfulness...the word & context conveys unbridled rage...

옛날의 르우เบน의 형제들의 요셉을 해하려 했을 때, 르우벤이 그를 구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창세기 42:37 절에서 보듯, 그가 자신의 아버지와 약속하기를, 자신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걸겠다고 합니다. 결국 죄의 무게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이처럼 세상 사람 모두가 죄를 어떻게 해서든 억누르려 함은, 우리는 모두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4 절에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라고 야곱이 말함은, 르우벤의 좌천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야곱과 르우벤의 서먹한 거리감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입니다. 결국 야곱이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은 저주의 말이었으며, 이는 정말 큰 비극이며, 안타깝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보듯이, 르우벤 족속은 약속의 땅, 요르단 동쪽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르우벤 뿐만 아니라 다른 두 아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5~6 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이는 창세기 34 장의 배경에서 하는 말로, 야곱 과 에서가 화해한 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갔고, 그곳의 왕인 하물에게서 땅을 삽니다. 그러나 하물의 아들인 세겜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 하였고, 이에 대한 복수로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를 구하고, 하물과 세겜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납치했으며 그들의 소유물들을 약탈했습니다. 오늘 구절에서 야곱은 이들의 이런 살인을 비유하기를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나타냅니다.

It shows particular cruelty where the leg's hamstring tendons — that transfer force from the hamstrings' muscles to flex the knees...are severed at the knee effectively incapacitating the person or animal from being able to walk. We wonder what purpose they could have had in doing that against oxen.... It seems from what Jacob says it was blind rage.....

v7, “Cursed be their anger, for it is fierce, and their wrath, for it is cruel! I will divide them in Jacob and scatter them in Israel.” Jacob's curse on sons two & three was not simply because of their anger...but the particular kind of anger — fierce — disproportionate & cruel.

After the event, Genesis 34 says that Jacob had taken them aside...though not it seems to rebuke & to discipline them for their sin in righteousness as a loving father to his wayward sons...but rather to complain about their foolishness for the trouble they had brought on him!

Now after all the years of reflection...their cruel wrath had become a horrible character trait in both Simeon & Levi...They were the most likely ring leaders in vying for Joseph's murder before selling him to slave-traders...since also we see Joseph keep Simeon as hostage in Egypt after the brother's first arrival when he was prince.... The guilt & shame of their ungodly anger had become one of their chief character traits.

Israel's prophecy of curse also came true as KH also noted for Simeon and Levi that 'both tribes were divided and scattered, so that neither of them were given a portion of the land. The tribe of Simeon virtually disappeared after the time of the conquest of the PL. And when the tribe of Levi was given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esthood, its people were therefore disallowed from having their own territory.'

Ungodly rage is a truly ugly thing...how ashamed we ought to be when we reflect on those times in our lives where another person becomes the object of such rage.

발목 힘줄을 끊음이 특별히 더 잔인한 행위인 것이, 다리의 힘줄은 무릎을 굽히기 위해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때, 동물이나 사람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견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들이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이들의 맹목적인 분노를 나타내기 위해 이런 비유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7 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흘리리로다”...야곱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저주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분노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특정한 종류의 분노, 즉 결렬하고 불균형하고, 잔인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창세기 34 장은 말씀하기를, 야곱이 그 애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합니다...이는 야곱이 사랑 많은 아버지로서, 그들을 의로움으로 꾸짖고 훈계하기 보다는, 아들들의 어리석음으로 일으킨 문제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시간이 지나 이런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은 끔찍한 인성으로 형성되게 됩니다...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처음 왔을 때, 요셉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 놓은 것을 볼 게 될 때, 이런 사실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기 전, 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아마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악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큼니다...결국 그들의 경건치 않은 분노에 대한 죄와 수치는 그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특징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자손들인 시므온과 레위 족속이 나뉘고 갈라지게 되어, 그들이 어떤 땅도 받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될 때, 이런 야곱의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에 땅을 정복한 뒤에 시므온 족속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은 제사장직을 맡게 되므로, 어떤 땅도 가질 수 없게 됨을 보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분노는 정말 추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누군가가 우리의 이런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떠올릴 때, 이런 기억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CHS: 'Do not say, "I cannot help having a bad temper." Friend, you must help it. Pray to God to help you overcome it at once, for either you must kill it, or it will kill you. You cannot carry a bad temper into heaven.'

The word is not telling us that all anger is wrong...in fact Paul in Ephesians 4:26-27 "Be angry and do not sin; do not let the sun go down on your anger, and give no opportunity to the devil."

There is such a thing as righteous anger — it is a holy attribute of God... but in our anger we are called not to sin...in other words — when sinned against...we are to resist the temptation to respond with a sinful attack... To remember Proverbs 15:1 "A gentle answer turns away wrath, but a harsh word stirs up anger."

Out of the overflow of the heart the mouth speaks.....we need changed hearts....but this word on its own from Jacob to Simeon & Levi leaves us desolate....longing for resolution... It begins to come in the fourth eldest.....

Judah's Grace & Redemption (8-12)

v8, "Judah, your brothers shall praise you; your hand shall be on the neck of your enemies; your father's sons shall bow down before you."

A change in Judah's character initially came after his confession & repentance before Tamar of the wicked way he had dealt with her in Genesis 38. Then, Israel's elevation of Judah began after Judah's repentance shown by his offer to substitute himself in place of Benjamin before Joseph in Genesis 44. He continued to grow as the leader on his return to Egypt, to take responsibility in place of Reuben in Gen 43 for the safe return of Benjamin...

찰스 스펀전 목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약하고 화 잘 내는 성격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친구여 당신은 이런 성격을 꼭 고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런 성격을 당신이 죽이지 않으면, 그 성격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화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우리가 에베소서 4:26~27 절을 보더라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말씀함은, 우리가 분노함으로 죄악 된 공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우리는 잠언 15:1 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의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그렇기에 우리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말은 우리를 적막하게 하고, 해결책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네 번째 아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유다의 은혜와 구원 (8~12 절)

8 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의 성품 변화를, 창세기 38 장에서 그가 그의 며느리인 다말 앞에서 그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44 장을 통해 보았듯이, 요셉 앞에서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잡혀있으려 함으로 회개의 모습을 보였고, 그일 이후로 이스라엘이 유다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3 장에서 보듯이, 애굽으로 돌아갈 때 베냐만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책임을 말씀으로, 장자인 르우เบน을 대신해서 리더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Then he lead the way for the family to Joseph in Genesis 46 to prepare for their resettlement in Egypt...and now Israel announces Judah's future as the one in place of Reuben who would be preeminent. In the conquest of the PL...it would be as Israel had predicted with the tribe of Judah having the most decisive victory of southern Canaan to claim Jerusalem that would become the city of David...the king.

v9, "Judah is a lion's cub; from the prey, my son, you have gone up. He stooped down; he crouched as a lion and as a lioness; who dares rouse him?"

The conquest of the PL saw Judah lead the charge like a lion in overcoming the enemy...The apostle John also picks up on Jacob's word...in Revelation 5:5 to describe Jesus as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the king of kings who would come from this son of Israel...now made clear in

v10, "The sceptre shall not depart from Judah, nor the ruler's staff from between his feet, until tribute comes to him; and to him shall be the obedience of the peoples. Binding his foal to the vine and his donkey's colt to the choice vine, he has washed his garments in wine and his vesture in the blood of grapes. 'His eyes are darker than wine, and his teeth whiter than milk.'"

Jacob prophesied that the sceptre or king's staff would remain with Judah...until a coming one would be paid tribute...& receive the obedience of the peoples...with a time of plenty so obvious that even his donkey could eat vintage grapes while his clothes could be washed in wine!

Kent Hughes: 'The first gospel promise of a deliverer from the seed of the woman who would crush the head of the serpent — in Genesis 3:15 — was preserved through the flood through righteous Noah, and then through Noah's son Shem and then through Shem's son Abraham and then through Abraham's son Isaac & then through Isaac's son Jacob and then through Jacob's son Judah. And then beyond the history of Genesis, God chose a descendant of Judah, King David, to be the line through which Messiah would come (2 Sam 7). When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came, he was born in Judah in the town of Bethlehem (Micah 5:2). No one but Jesus had these credentials...when he changed the water to wine...the Messiah was present! It was a day of abundance...and a taste of the eternal day.'

그리고 유다는 창세기 46 장에서, 그의 온 가족을 요셉에게 인도하므로 애굽에서 재정착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야곱은 유다의 밝은 미래에 대해 선언하는 모습을 오늘 구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의 말과 같이, 유다 족속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왕 다윗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차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승리를 남부 가나안에서 거둡니다.

9 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옆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족속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유다는 사자처럼 돌격하여 적을 무찌릅니다. 사도요한은 이런 야곱의 말을 빌려 요한계시록 5:5 절에서, 왕 중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을 유다 족속의 사자와 같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10~12 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0~12 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야곱은 장차 오실 분이 찬사를 받고, 그의 백성의 순종을 받을 때 까지 통치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또한 열매가 너무 풍성하여, 심지어 그의 당나귀가 포도 열매를 먹으며, 그의 옷을 포도주와 포도즙에 빨 것이라 말합니다.

Kent Hughes 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15 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첫 복음의 약속은, 홍수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의 아들인 셈을 통해서, 그리고 셈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보존된다. 그리고 창세기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다 (사무엘 하 7 장). 유다 족속의 사자가 오셨을 때 그는 유다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미가 5:2). 예수님 외에 그 아무도 이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진정 이런 메시아를 통해, 풍요와 영생을 맛보게 된 것이다.

The End of the Story (Revelation 7:5&7)

And for that day...the Apostle John in his revelation hears the Angel of God speak a long-time in coming final word of seals of redemption for 144k chosen ones from 12 tribes of Israel. Notably it begins with 12k from the tribe of Judah...in line with Jacob's prophecy of preeminence...but also and joyfully bringing God's redemption rightly left for a time under a state of curse by Israel...also includes 12k from the tribe of Reuben...12k from Simeon and 12k from Levi...

A point of Revelation 7:4-8 in light of Genesis 49:1-12 & the unfolding history of Reuben, Simeon & Levi is that though sin & its curse is devastating...the grace of the Lord in Christ is entirely redeeming.

Redemption from the Curse in the Lion of Judah

For there is certain hope of redemption in this Son of Israel...who is the ultimate Son of Judah... Jesus — is our long prophesied Messiah King — who as Jacob predicted would come from the tribe of Judah & receive the tribute of worship & the obedience of the nations.

He is the Lion of Judah — who we see in Revelation 5 is also the Lamb of God who was slain to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In that He is the long awaited seed of the woman who in being struck, crushed the head of Satan.

Praise God that by Jesus' death our guilt is gone & our lives have been redeemed! By His resurrection life He conquers our hearts to fill us with His grace.

이야기의 끝 (요한계시록 7:5&7 절)

우리는 요한계시록 7 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장을 이스라엘 12 지파로 부터 온 144,000 명의 백성의 이마에 찍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다 지파에서 12,000 명이 왔으며, 르우벤 지파에서 12,000 명, 시므온 지파에서 12,000 명,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12,000 명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9:1~12 절의 배경에서 이 요한계시록 7:4~8 절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배우는 사실은, 비록 죄와 그 저주는 참혹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은혜는 완전히(entirely)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사자 안에서 저주로부터의 구원.

이런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님 안에 분명한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언되신 메시아이자 왕이시며, 야곱의 예언과 같이 유다의 자손에서 나서서 모든 열방으로부터 경배와 순종을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는 유다의 사자이자, 요한계시록 5 장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시고, 여자의 자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구원받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